

화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해 가치 실현

화순군(화순군수 구복규)은 최근 화순교육지원청, 농축협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 2022년 4월 농업축산식품부의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7개 분야 사업에 선정돼, 올해 6월 그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먹거리 계획'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신선·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

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먹거리 공급체계 활성화 및 지역생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관내 로컬푸드 출하 농가 및 중소·고령·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올해 6월 총 40억 원 공모사업에 신청해 국비 20억을 확보

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 2025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이번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호경 기자

나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항소 취하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앞서 지난 2021년 10월 18일 한남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한남이 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한남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한남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한남이 거짓, 부정한 방

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 이후 9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유리한 증거나 입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해 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기자

영광, 청년정책협의체 출범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청년이 자유롭고 적극적인 청년 정책 활동을 이끌어갈 영광군 제5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선발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청년정책협의체는 군 자체적으로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군 시책에 반영해 추진하고자 운영하며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전달 ▲청년 문제 발굴·조사 후 개선 방안 모색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한다.

워크숍을 통해 청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의 역할과 정책 제안 관련 교육으로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협의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일자리분과 ▲생활안정분과 ▲복지문화분과 ▲자율분과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돼 반기별 전체회의와 월별 분과회의를 통해 운영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청년정책협의체가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 제안자가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청년이 바꾸고 만들어 가는 영광군을 실현하기 위해 군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민선8기 들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에 오른 장성군이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베를 바짝 쥐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최근 열린 정례조회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인용해 "청렴은 시대를 막론하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본무(本務)"임을 강조했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 "청렴은 공무원 본무(本務)"

민선8기 들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에 오른 장성군이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베를 바짝 쥐었다.

군에 따르면, 김한중 장성군수는 최근 열린 정례조회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인용해 "청렴은 시대를 막론하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본무(本務)"임을 강조하며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인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성실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고 건의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도 주문했다. 김한중 군수는 "공직자의 땀방울이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고 확보 사업 발굴 및 분석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한편,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 납세자 16명에게 표창패와 증명서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전직원 실천 결의대회와 결의문 낭독,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저자이며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인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초청 강연도 열렸다. /유광중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서울 가락동 시장 방문

유통실태 점검 및 주요 도매법인과 간담회 진행

이병노 담양군수가 최근 담양팔기 등 농산물의 주요 유통판로인 서울 가락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해 유통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이 군수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작업형태와 유통현황을 일일이 비교하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통의 실태를 살폈다.

이어 담양군, 군의회, 지역농협, 도매시장 출하 딸기작목회원 60여 명과 중앙청과, 서울청과, 동화청과, 농협가락공판장 등 주요 도매법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담양의 죽향, 메리퀸의 출하물량 확대, 품질 격차를 줄이는 선별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진성 기자

이병노 군수는 현장에서 "담양 팔기는 비옥한 토질, 풍부한 일조량과 더불어 영산강 시원의 청정한 자연 환경 아래 재배돼 단단하고 향과 단맛이 뛰어나다"며 "죽향, 메리퀸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재배기술과 인력을 지원해 시장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전국 3대 딸기 주산지인 367ha에서 1만3천206톤을 생산해 99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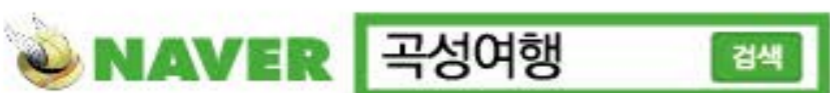
특히 담양 자체개발 딸기인 죽향과 메리퀸은 동남아와 미국 등에 수출하며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서 프리미엄 딸기로 자리잡고 있다. /장진성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9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